

News

하반기 금융지주사 첫 동시다발 '중간배당' 가능성 커져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배당 권고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2분기 실적 발표 후 첫 동시다발 중간 배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월 6일 금감원은 최근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한 국내 금융지주사 8곳과 은행 19곳에 이달 11일까지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카뱅, 중금리대출 '공격 앞으로'...대출한도 7천만→1억원 또 확대

뉴스1

카카오뱅크는 이달 중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지난 3월 기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5월에도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금리를 최대 1.20%p(포인트) 인하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금리는 5~6% 수준

금융지주사들 "동남아 씨티은행 인수 검토"

동아일보

미국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소매금융 사업 매각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금융지주들이 씨티그룹의 베트남 등 동남아 사업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4월에 매물로 나온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사업 인수를 검토했다.

변동금리 대출 6년來 최고...금리 오르면 가계빚 어찌나

뉴시스

지난 4월 말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74.2%)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잔액 기준으로 살펴봐도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71.1%로 2015년 2월(71.3%)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 한화생명 지분 매각 재도전...새 주관사 선정 착수

머니투데이

예금보험공사 보유 한화생명 지분 10%(8685만7001주)를 팔기 위해 새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수년째 미뤄지고 있는 지분 매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생명 주식 매각주관사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은 14일이며, 국내외 외국계 1곳씩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

저축성보험 가입자 는다...금리상승에 이율도 꾸준히 상승

한국경제TV

6일 6월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신(新)계약에서 저축성보험의 비중은 작년 1월 8.2%에서 올해 3월 13.6%로 눈에 띄게 확대 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며 판매 비중이 장기간 10% 아래에 머물렀으나 작년 7월 10%를 넘었고 올해 3월 14% 가까이 확대

4년만에 보험사에 다시 열리는 공공의료 데이터

머니투데이

보험회사들이 가명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17년 국정감사 후 보험사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 지 4년여 만 보건복지부 산하 공영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는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국내 10개 보험사 중 KB손해보험, KB생명보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20일부터 시행

서울경제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안은 공모주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 이를 위해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